

목포시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132
----------	-----

1. 개정이유

- 건축조례 제4조(적용의 완화)규정의 일부완화를 적용 받을시 별도의 서식(제7호)을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 건축조례 제8조의 가설건축물의 대상 중 알루미늄샤시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 10제곱미터이하에서 30제곱미터로 규모를 확대하여 현실성있는 가설건축물의 시설을 설치가 되도록 하며
- 또한 건축조례 제10조의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는 것은 신규 건축물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이 건축지도원으로 실무경력이 필요한 지도원의 임무를 수행키 위한 사항이고
- 공동주택의 채광 일조권 확보와 공개공지 조경식재 면적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강화하는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법·영 또는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받을시 요청시 서식
-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 안 제8조 제2항
- 건축지도원 자격을 전문화, 구체화 - 안 제10조 제1항
- 대지안의 조경 - 안 제11조 제2항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안 제60조 제2항
- 공개공지의 확보 - 안 제62조 제2항

3. 검토의견

☐ 개정요지는

-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 등)가 건축업무 수행시 완화 기준의 적용시 요청서식의 마련과 주차장,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조립식 구조의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현행 10제곱미터 30제곱미터로 확대하여 현실적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사항이며
-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보다 구체화하여 건축기술의 변화, 발전에 부응하는 지도원의 자격을 명시하였고
-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현행 0.8배에서 1.0배로 멀리 떨어지게 하여 일조권 확보가 되도록 하였으며
- 공개공지의 조경식재 면적을 현행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강화하여 녹지공간 확보가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종합의견

- 건축관계자의 건축업무 수행시 적용. 요청서의 서식 일원화 마련, 가설건축물의 면적 확대 공동주택 채광을 위한 일조권 확보, 공개공지의 조경식재 면적 강화의 개정 규정은

미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사료되며

- 조경식재 제외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상업지역에서 330제곱미터 이하와 한만, 고물상까지 확대한 사항은 주민들의 경제적, 절차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관점과

특히, 상업지역 내에서의 조경효과보다 현실적인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고물상의 경우 이의 운영은 일종의 혐오시설로서 재활용품목을 구분 생산하는, 주로 영세업자임을 고려하였다고 사료됨.

다만, 시각적, 환경적으로 일정규모의 조경이 필요한 사항이 제기되지만, 현실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라 사료되어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